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의 24절기를 주제로 한 동물형상의 도자표현연구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with Animals ' Shape of Korean 24 Seasonal Divisions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진 희 정

한국의 24절기를 주제로 한 동물형상의 도자표현연구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with Animals ' Shape of Korean 24 Seasonal Divisions

지도교수 이명아

이 논문을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진 희 정

진희정의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
도 목 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3
1. 24절기의 일반적 고찰	3
1) 한국의 24절기의 의의	3
2) 한국의 24절기와 풍속	4
2. 조형예술과 자연의 이해	12
1) 조형예술과 자연의 관계	12
2) 조형예술에서 동물의 표현과 예술작품 사례분석	13
(1)의인화적 표현	14
(2)해학적 표현	18
(3)상징적 표현	20
III. 작품제작 및 해설	24
1. 작품계획	24
2. 제작과정	27
3. 작품해설	33
IV. 결 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54

요 약

제목 : 한국의 24절기를 주제로 한 동물형상의 도자표현연구

인간은 먼 선사시대 이전부터 자연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과 유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거대한 생태계의 흐름을 이어왔다. 이는 미의 역사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연은 인간과 상호관계를 갖고 예술의 소통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번기 시대부터 이어왔던 한국의 24절기를 주제로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연결한다.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본질을 파악하여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미로 발전시키고 표현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24절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현재적 감성으로 표출하여 우리의 모습을 자연과 동물에 빗대어 상징적, 유희적, 해학적으로 의인화하여 도자조형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장에서는 한국의 24절기의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절기가 갖는 의미와 풍속을 이해하고, 자연이 예술에 있어서 갖는 역할과 인류문명 사회와 현대조형예술에 어떠한 방법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포함하여 표현되었는지 다양한 작품사례를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III장에서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계획 및 제작과정에서는 각 절기 속 의미표현을 동물이미지와 자연이미지의 표현연구와 계절별 색감표현에 대해 서술하였고, 도자표현 이외의 타 재료의 적합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의 24절기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며 자연과 순응하는 옛 선조들의 지혜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한국의 24절기를 오늘날 도자예술에 표현주제로 흙의 특성에 맞게 해석하고, 절기의 흥미 있는 이야기로 감정을 전해준다. 이러한 자연과 동물들의 특징을 극화시켜 도자 조형화하여 현재 속 자연의 지혜를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표 목 차

<표1> 24절기	11
<표2> 12절기의 조형적 동물표현 형태 연구	52
<표3> 12절기의 평면적 자연이미지 연구	62
<표4> 망간 조합량(g)	82
<표5> 테라시줄레타 조합량(g)	82
<표6> 테라시줄레타와 안료의 조합비a	92
<표7> 테라시줄레타와 안료의 조합비b	93
<표8> Duncan 사의 중화도 유약 IN시리즈	13
<표9> Duncan 사의 중화도 유약 EZ시리즈	13

도 목 차

[도1] William Wegman 「Pat-a-cake」 2001	5· 1
[도2] William Wegman 「Miss Met」 1991	5· 1
[도3] Lisa Clague 「Inner World」 2006	6· 1
[도4] Lisa Clague 「Trio」 2000	6· 1
[도5] Cynthia Consentino 「Birdman」 2006	7· 1
[도6] Cynthia Consentino 「Birdwoman」 2006	7· 1
[도7] Cynthia Consentino 「Harpy」 2006	7· 1
[도8] Pamela Earnshaw Kelly 「Territorial 2」 2005	7· 1
[도9] David Gilhooly 「Mao Tae Toad」 1992	9· 1
[도10] David Gilhooly 「Frog Burger, One」 2008	9· 1
[도11] 박재국 「항아리」 2007	02
[도12] 이은범 1997	02
[도13] Adrian Saxe 「Untitled Covered Jar」 1980	1· 2
[도14] Adrian Saxe 「Antelope Jar」 1943	1· 2
[도15] 신상호 「Dream of Africa」 2007	22
[도16] 신상호 「Dream of Africa」 2007	22
[도17] 맹옥재 「회색술」 2012	32
[도18] 윤지용 「Chessman」 2012	32

작품목차

[작품1] 「봄 절기 - 입춘, 경칩, 청명」	33
[작품2] 「봄 절기 - 우수, 춘분, 곡우」	43
[작품3] 「여름 절기 - 소만, 하지, 대서」	53
[작품4] 「여름 절기 - 입하, 망종, 소서」	63
[작품5] 「가을 절기 - 처서, 백로, 한로」	73
[작품6] 「가을 절기 - 입추, 추분, 상강」	83
[작품7] 「겨울 절기 - 입동, 대설, 소한」	93
[작품8] 「겨울 절기 - 소설, 동지, 대한」	104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은 먼 선사시대 이전부터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거대한 생태계의 흐름을 이어온 것이다. 인간 역시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하나의 개체를 이루었으며 미의 역사에서 자연은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이루었다. 인간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자연을 새롭게 만들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술이 한 방법으로 나타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번기 시대에 자연은 살피야만 하는 것이며 시대적으로 선조들은 1년을 사계절로 구분하고 다시 그것을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 된 24절기로 나누어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절기는 농경사회의 관습에 따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절기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변화하는 자연현상과 동물들이 절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절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다.

현 시대에 기계화 정보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가치를 되묻는 흐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예술분야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고 조형작품을 통해 인간사회를 풍자하거나 의인화하여 교훈과 유머화하는 표현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24절기를 통해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 절기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현재 속 자연의 지혜를 알게 한다. 또한 절기를 현재적 감성으로 표출하여 우리의 모습을 자연과 동물에 빗대어 상징적, 유희적, 해학적으로 의인화하여 도자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4절기를 오늘날 도자예술에 표현주제로 흙의 특성에 맞게 해석해보고, 절기의 흥미 있는 이야기로 감정을 전해주어 현재 속 자연의 지혜를 동물들의 특징을 극화시켜 도자 조형화하여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24절기를 자연과 동물에 빗대어 조형화한 도자표현 연구이다. 조형행위의 범위는 정신적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24절기의 의의와 특성에 관하여 문헌을 통해 조사해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자조형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국내·외 학위논문과 관련서적, 참고문헌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절기의 의의와 절기의 의미와 풍속에 관하여 문헌을 통해 고찰해보고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논하였다.

둘째, 조형표현에 있어 절기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자연과 동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자연과 동물이 인류문명 사회와 현대조형예술에 어떠한 방법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포함한 작품으로 표현되었는지 작품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형예술의 상징적, 해학적, 의인화적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24절기를 주제로 동물의 동작이미지와 자연의 상징화하는 개성적 형태 표현 방식을 계획하고, 이와 함께 계절 속 절기에 맞는 자연이미지와 색상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술하였고 동물표현에 어울리는 자연적 기법 표현의 방법과 계절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색상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24절기의 특징적 표현에 대한 작품해설과 작품 디테일 표현을 필요로 도자조형에 타 재료에 대한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절기의 일반적 고찰

1) 한국의 24절기의 의의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며 파종하거나 작물을 가꾸며 수확의 최적기를 파악하는 일은 필수적인 중족 요건으로 농민이라면 누구나 때구 같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초기에는 음력을 바탕으로 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음력은 기본적으로 달(月)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옳게 반영하는 데 태생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맹점의 해결을 겨냥해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나타내는 24절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이 것이 바로 태양력(太陽曆)이다.¹⁾

24절기는 춘분점(春分點=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적도를 통과하는 점)부터 황도(黃道=지구의 공전으로 태양의 위치가 매일 1도씩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길)를 따라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24개의 점을 정했을 때 태양이 각 점을 지나는 시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천구상에서 태양의 위치가 황경(黃經) 0도일 때가 춘분, 15도일 때 청명, 30도일 때 곡우, 45도일 때 입하, 60도일 때 소만, 75도일 때 망종, 90도일 때 하지, 105도일 때 소서, 120도일 때 대서, 135도일 때 입추, 150도일 때 처서, 165도일 때 백로, 180도일 때 추분, 195도일 때 한로, 210도일 때 상강, 225도일 때 입동, 240도일 때 소설, 255도일 때 대설, 270도일 때 동지, 285도일 때 소한, 300도일 때 대한, 315도일 때 입춘, 330도일 때 우수, 345도일 때 경칩이다.

한국절기는 이처럼 음력을 사용했던 농경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양력과 관계 없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태양의 운동을 바탕으로 정한 결과 양력이 일치하게 됐다.²⁾ 이는 오랫동안 계절의 변화나 농사를 짓는 기준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옛날과 비교해 기후와 생태계가 많이 달라진 상태여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에 맞추며 살아왔기에 그 뜻과 함께 현대에 응용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한완암, (2019), 「절기와 습속 들춰보기」, 해드림, p.7.

2) 지운영, (2006), 「명절과 24절기」, 힘돌, p.35.

2) 한국의 24절기와 풍속

입춘(立春)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로서 양력으로 2월4일이나 5일경이다. ‘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입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로부터 ‘이날이 되면 동풍이 불어오고 얼음이 풀리며 겨울잠을 자던 미물이나 동물이 깨어난다.’했다.³⁾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아직 추위가 강하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이 것은 각 가정의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춘축(春祝) 입춘축(入春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봄의 시작 무렵인 입춘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반겼다. 또한, 이날 오곡을 솥에 넣고 볶을 때, 가장 먼저 밖으로 튀어 나오는 곡식의 풍년이 든다는 속설을 믿기도 했다.⁴⁾

우수(雨水)는 24절기 중에 두 번째로 음력 정월 중기에 오며 양력으로는 2월 19일 혹은 20일경이다. 예로부터 봄을 알리는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셔 건조한 대기가 습윤(濕潤)해지는 계절로서, ‘얼음이 녹아내리거나 겨우내 맹혹한 모습을 띠던 눈이 녹아 비로 내려 물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수이다. 우수는 겨우내 건기가 지속되어 가뭄이 지속되었지만, 만물이 소생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 비를 내려야 할 적기를 뜻한다.⁵⁾

경칩(驚蟄)은 24절기 중에서 세 번째로서 음력 2월 절기에 드는데 양력으로는 3월5일이나 6일이다. 계절적으로 이 무렵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산야의 모든 풀이나 나무의 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며 겨울잠에 빠졌던 개구리를 비롯하여 동면하던 온갖 동물이 깨어나 서서히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뜻에서 ‘놀랄 경(驚)’과 ‘숨을 칩(蟄)’이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명명한 절기 이름이다.⁶⁾

개구리들은 번식기인 봄을 맞아 물이 끈 곳에 알을 까놓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데 좋을 뿐 아니라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경칩일에 개구리 알을 먹는 풍속이 전해 오고 있다.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르는 지방도 있다. 그리고 이 날에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⁷⁾

3) 한관암, 앞의 책, p.18.

4) 한관암, 앞의 책, p.19.

5) 한관암, 앞의 책, p.24-25.

6) 한관암, 앞의 책, p.28.

24절기 중에 네 번째인 절기인 춘분(春分)은 음력 2월의 중기이며 양력 3월 21일 혹은 22일에 온다. 이 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춘분점(春分點: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점)에 이를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赤道)위에 바로 비추는 관계로 춘분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이 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

이 무렵에 이르면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에 분주해지기 마련이다.⁸⁾ 특히 농사의 시작인 초경을 엄숙하게 행하여야만 한 해 동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어 농사일 밖의 모든 행사를 금했다.

청명(淸明)은 곡우와 함께 기본적으로 음력 3월의 절기에 들어있으며 양력으로 4월 5일이나 6일 경에 오고 24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오는 절기이다. 청명의 의미는 ‘맑음’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히 봄이 되어 날씨가 해맑고 화사하며 온 누리의 대기가 청청백백하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약동의 계절을 맞아 생명의 근원이 예사롭지 않게 분주해지며 경건해진다는 성격이 짙다.

보편적으로 농사꾼들은 청명을 기점으로 봄 일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이날을 각별하게 여겨왔다.⁹⁾ 특히 벼농사를 지을 채비를 위해서 청명을 전후로 가래질하며 논둑을 보수하거나 진흙을 발라 논에 물을 가득 채워 새나가지 못하게 만들며 본격적인 농사준비로 분주해진다.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穀雨)는 봄의 마지막 절기로서 음력 3월로 양력 4월 20일 혹은 21일의 중기(中期)이다. 이 계절이 되면 겨우내 지리멸렬한 상태로 생명을 부지하던 산천초목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소생의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어 자연은 기지개를 켜며 용트림을 시작한다. 곡우는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곡우는 새봄에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씨앗을 파종하거나 싹을 틔울 채비를 차근차근해야 한다. 특히 농사 중에 으뜸인 벼농사에 성패는 못자리를 제대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다. ¹⁰⁾

입하(立夏)는 한 해를 24 등분한 일곱 번째 절기로서 음력 4월의 절기에 들어있다. 입하는 ‘여름에 든다.’혹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의미로

7) 정학유, (2008), 「농가월령가」, 창해, p.25-26.

8) 한관암, 앞의 책, p.33.

9) 한관암, 앞의 책, p.37-38.

10) 한관암, 앞의 책, p.41-45.

서 계절이 여름으로 내닫고 있음을 알린다.

옛사람들은 입하 보름동안을 닷새씩 3후로 가름해 초후에는 청개구리가 울고, 중후에는 지렁이가 땅속에서 나오며, 말후에는 왕과(쥐참외)가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농촌의 싱그러운 신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초여름이 다가오면 새봄과 함께 소생하며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에 매달려야 했다.¹¹⁾

24절기 중에 여덟 번째가 소만(小滿)으로 음력4월의 중기에 들며 양력으로 5월21일이나 22일이다. 소만은‘만물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득 찬다.’는 뜻을 가지며 이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한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난해 가을에 파종해 알뜰하게 가꿨던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늦어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역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씨앗의 파종 적기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농촌에서 일 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이다. ¹²⁾

망종(芒種)은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이며 음력으로 5월로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쯤의 절기이다. 망종은 벼나 보리를 비롯하여 밀과 같이 수업을 가진 까끄라기(芒)를 가진 작물의 종자를 파종하거나 수확하는 시기이다.

망종 무렵이면 우리의 전통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축인 벼농사의 모내기와 밭농사의 대표 작물인 보리의 수확이 한마당에서 뒤엎쳐 뒤감당이 버거운 모양새가 펼쳐진다. 벼농사의 모내기와 지난가을에 파종했던 보리나 밀이 완전히 익어 거둬들이는 밀 보리 베기와 탈곡 작업이 겹치는 관계로 일 년 중에 가장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의 절정에 치달는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벼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혹은, ‘햇보리를 먹게 된다는 망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¹³⁾

24절기 중에 열 번째인 하지(夏至)는 음력으로 5월의 중기이고 양력으로는 6월21일 혹은 22일에 온다. 태양의 높이가 가장 높아 여름의 절정을 이룬다. 북반구에 있어서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다. 북극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지지 않으며 남극에서는 수평선 위에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14시간 35분)은 일

11) 한관암, 앞의 책, p.46-47.

12) 한관암, 앞의 책, p.52.

13) 한관암, 앞의 책, p.58.

년 중 가장 길다.

남부지방 농촌에서는 흔히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제물로는 개나 돼지 또는 소를 잡아 그 머리만 물속에 넣는다. 그러면 용신(龍神)이 그 부정함을 노하여 비를 내려 씻어 내린다고 믿었다.¹⁴⁾

소서(小暑)는 24절기 중에 열한 번째로서 음력 6월의 절기에 들며 양력으로 7월 7일이나 8일이다. 문자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소서부터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에 접어드는 계절’이 이어진다. 단순히 더위만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아니라 장마전선 형성되면서 장기간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끈질기게 버티는 관세로 대기의 습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우기가 지루하게 지속되는 장마철로 접어든다.¹⁵⁾

옛날에 소서부터 뱃논에 김매기의 시작인 ‘초벌매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뿌리가 내린 벼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며 논바닥을 호미로 파 뒤집어 생육을 돕는 김매기 작업을 한다. 지금은 제초제를 뿌리고 논김은 매지 않는다.

24절기 중에 열두 번째인 대서(大暑)는 음력으로 6월의 중기에 오며 양력으로는 7월 23일이나 24일이다. 이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큰 더위’라는 의미인 대서는 일반적으로 더위가 매우 심한 중복 즈음에 온다.

대체적으로 대서 무렵이면 더위는 최고조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는 지루하게 장마전선이 머물며 구멍 뚫린 것 같은 하늘에서 속절없이 장맛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 가공할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현상으로 심한 가뭄과 무더위가 지속되어 냇물이나 강물이 말라붙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쪼쪼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를 당하면 나라나 마을에 공동으로 기우제를 모시는 풍속이 성행했다.¹⁶⁾

24절기 중에 열세 번째인 입추(立秋)는 음력 7월의 절기에 오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다. 입추는 ‘가을(秋)로 들어서(入) 절기’임을 의미한다.

아직 늦더위인 잔서(殘暑)가 진을 뺄 정도로 괴롭히면서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가을을 실감하기 어려워도 밤이면 선선한 기운이나 바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한다. 입추를 지난 뒤에도 닥새 이상 비가 연이어지는 경우 예상되는 재앙

14) 원영주, 앞의 책, p.58.

15) 한관암, 앞의 책, p.65-66.

16) 한관암, 앞의 책, p.69-70.

을 막기 위해 조정이나 마을 공동으로 비를 댕게 해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다.¹⁷⁾

처서(處暑)는 24절기 중에 열네 번째로 음력 7월의 중기에 들며 양력으로는 8월 23일이나 24일로서, ‘더위가 그친다.’혹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서퇴(暑退)를 의미하며 붙여진 이름이다.¹⁸⁾ 이 시기에는 꾀은 가을비가 내릴 때가 많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별초를 한다.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행동들도 이 무렵에 하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된다.¹⁹⁾

백로(白露)는 24절기 중에 열다섯 번째로서 음력으로 8월의 절기에 들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9월 8일이나 9일경이다. 이 때쯤이면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면서 가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는 시기이다.

우리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들어있는 절기로서 대체적으로 장마가 물러가고 중후와 말후 무렵이 되면 쾌청한 날씨가 이어져 모든 곡식이 움골지게 여문다. 예로부터 백로가 지나면서 조상의 묘에 별초를 하면서, 잠시 쉬는 모양새가 계속된다. 이런 느슨한 틈새의 쓰임새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평소에 일 때문에 문안드리지 못했던 어른들을 찾아뵙거나 오랫동안 친정을 다녀오지 못한 며느리에게 근친(覲親)을 보내서 낡아 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도록 배려하던 풍습도 전해졌다.²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24절기 중에 열여섯 번째인 추분(秋分)은 음력 8월의 중기에 들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9월 23일이나 24일경이다. 추분이 지나면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비하여 낮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분 무렵이 되면 농부들은 다양한 농작물의 추수를 하거나 거둬들일 채비를 야무지게 해야 하며 오곡백과가 풍성한 시기이다.²¹⁾

17) 한관암, 앞의 책, p. 76-77.

18) 한관암, 앞의 책, p. 81.

19) 원영주, 앞의 책, p. 64.

20) 한관암, 앞의 책, p. 85-87.

21) 한관암, 앞의 책, p. 90-91.

한로(寒露)는 24절기 중에 열일곱 번째이며 음력 9월의 절기에 오는 관계로 양력으로는 10월 8일이나 9일경이다. 한로에는 단풍이 짙어지고, 공기가 차고 이슬은 풀에 무겁게 맺히며 서리가 내리는 절기이다.

서리가 내릴 때면 그동안에 간악했던 무리들은 음탕한 기운을 받아서 입동에 이르면 더욱 장성할 것이므로 간악한 음기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추상 같은 형벌을 가한다는 풍속이 있다. 한로를 전후하여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며 온갖 모임이나 놀이가 성행한다.²²⁾ 그리고 이 무렵은 모든 농작물이 풍성하게 익어 충실하게 영근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가을의 적기이다.

상강(霜降)은 24절기 중에서 열여덟 번째로 음력 9월의 중기에 들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10월 23일이나 24일경이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 추위를 재촉하는 절기이다. 이때에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며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지므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상강이 되면 가을걷이인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뒷마무리를 하는 한편 ‘보리파종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가을이 늦게 오지만 상강에 이르면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단풍이 금수강산 수놓는 장관이 펼쳐진다.²³⁾

24절기 중에 열아홉 번째인 입동(立冬)은 음력으로 10월의 절기에 들어 양력으로는 11월 7일이나 8일에 오며 ‘겨울(冬로) 들어선다(立).’는 의미를 가진다.

농가에서는 배추와 무를 절여서 김장을 담그는 한편 갖가지 들나물 등을 절여 담그며 또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기 위하여 배추쭈기에 부산할 때이다. 입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올 기나긴 인고의 삼동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김장은 입동 전 혹은 입동 직후에 하여야 제 맛이 난다.²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은 24절기 중에 스무 번째로 음력 10월의 중기에 들어 양력으로는 11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이때부터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기분이 든다고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간간히 내리쬘어 소춘(小春)이라고도 불린다.

소설이 들어있는 음력 10월은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추수한 곡식이 집안에

22) 원영주, 앞의 책, p. 70.

23) 한관암, 앞의 책, p. 98-99.

24) 원영주, 앞의 책, p. 75.

가득하고 모든 농사일을 매듭짓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완벽한 농한기이다.²⁵⁾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대설(大雪)은 24절기 중에 스물한 번째이며 음력 11월의 절기에 들기 때문에 양력으로 12월 7일이나 8일 경에 온다. 대설은 역법의 기준이 중국 화북 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바탕으로 정립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꼭 이 무렵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

대설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전승되는 문화 행사는 없다. 하지만 예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겨울은 푸근하며 이듬해에 풍년이 온다고 믿었다.²⁶⁾

동지(冬至)는 24절기 중에 스물두 번째로서 음력 11월의 중기에 들어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온다. 일 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동지가 옛날에는 제법 그럴듯한 명절로 대접을 받았지만, 오늘날엔 24절기 중의 하나로서 팔죽을 쑤어 먹는 정도로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²⁷⁾

소한(小寒)은 24절기 중에서 스물세 번째로 음력 12월의 절기인 때문에 양력으로는 새해가 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1월 5일이나 6일에 온다.²⁸⁾ 절후의 이름으로 보아 대한 때가 가장 추운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해를 통틀어서 소한 무렵이 가장 춥고,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일 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를 뜻하는 대한(大寒)은 24절기 중에 스물네 번째인 마지막이며 음력으로는 12월의 중기이고 양력으로는 1월 20일이나 21일에 온다. 겨울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대한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경이므로 사정이 다소 다르다.

대한의 마지막 날을 겨울을 매듭짓는 날로 보고 계절적 연말일로 여겼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추위가 다소 약해진다.

25) 한관암, 앞의 책, p.106-107.

26) 한관암, 앞의 책, p.111-112.

27) 한관암, 앞의 책, p.114.

28) 한관암, 앞의 책, p.119.

계절	절기	황경(도)	시기 (2013 기준)	소개
봄	입춘(立春)	315	2월 4일	봄의 시작
	우수(雨水)	330	2월 18일	비가 내리고 싹이 틈
	경칩(驚蟄)	345	3월 5일	개구리가 잠에서 깨
	춘분(春分)	0	3월 20일	낮이 길어지기 시작
	청명(淸明)	15	4월 5일	봄 농사 준비
	곡우(穀雨)	30	4월 20일	농사비가 내림
여름	입하(立夏)	45	5월 5일	여름의 시작
	소만(小滿)	60	5월 21일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
	망종(芒種)	75	6월 5일	씨뿌리기
	하지(夏至)	90	6월 21일	낮이 가장 긴 시기
	소서(小暑)	105	7월 7일	여름 더위의 시작
	대서(大暑)	120	7월 23일	더위가 가장 심한 때
가을	입추(立秋)	135	8월 7일	가을의 시작
	처서(處暑)	150	8월 23일	일교차 커짐
	백로(白露)	165	9월 7일	이슬이 내리기 시작
	추분(秋分)	180	9월 23일	밤이 길어지는 시기
	한로(寒露)	195	10월 8일	찬 이슬이 내림
	상강(霜降)	210	10월 23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
겨울	입동(立冬)	225	11월 7일	겨울의 시작
	소설(小雪)	240	11월 22일	얼음이 얼기 시작
	대설(大雪)	255	12월 7일	겨울 큰 눈이 오
	동지(冬至)	270	12월 22일	밤이 연중 가장 긴 때
	소한(小寒)	285	1월 5일	겨울 중 가장 추운 때
	대한(大寒)	300	1월 20일	겨울 큰 추위

<표1> 24절기

2. 조형예술과 자연의 이해

1) 조형예술과 자연의 관계

우리는 자연의 대상물을 대할 때,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고, 또한 이 감정을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체험한다. 그리하여 자연 대상과 인간 감정이 내면적으로 융합하고 상호 침투하게 된다.²⁹⁾ 미의 역사는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같은 생명으로 같이 생성되었으며, 그러한 창조의 신비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하며,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³⁰⁾ 인간과 인간의 삶이 자연스럽게 자연 안에 속하게 되면서 자연의 미는 예술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소재가 된다. 이렇듯 예술의 근원이 되는 자연은 끝없는 변화와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예술에 있어 자연은 미지의 형태 속에 넘치는 형의 세계라 할 수 있다.³¹⁾

그러나 예술은 단순히 자연의 외관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자연의 외관을 통하여 느껴지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그에 따른 감동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때문에 예술가들은 자연의 외관을 단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예술적인 수단으로서 자연의 내적 가치와 작가의 조형의식을 재창조하여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생략 또는 추상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자연과는 다른 생명력으로 예술을 표현한다. 예술가들이 자연으로부터 조형 소재를 빌어 올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이 표현적 성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관찰을 통해 지각된 자연 형태를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원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게 된다. 작가의 개성에 따라 자연을 해석하여 재구성한다. 보는 이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것이 각자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방향의 조형작품이 나타난다. 자연스러움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담고 있는 자연에 가치를 두어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형예술은 눈을 통해 작용하며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각예술이다.³²⁾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본질을 파악하여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미로 발전시키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익숙하

29) 김광명, (2008),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학연문화사, p.270.

30) 김재은, (1994),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p.24.

31) Herber Read, 윤일주(역), (1991),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p.155.

32) Herber Read, 윤일주(역), 앞의 책, p.47.

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상상력과 표현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창조하게 해주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관대한 자연은 새로운 미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나타내준다. 인간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자연을 새롭게 만들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술이 한 방법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2) 조형예술에서 동물의 표현과 예술작품 사례분석

예술에 있어서 표현은 대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며, 사실적으로 충실하게 묘사된 경우도 많지만 본질적인 요소만 생략해서 추상화 혹은 기호화하기도 한다. 또한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을 더해 왜곡시키거나 과장하여 조형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동물은 인류보다 더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한 생명체였다. 최초의 인류는 자신을 지키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들과 싸워 이겨야 했고,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잡아 먹기로 삼아야 했으며 결국은 ‘만물의 영장’답게 이들 중의 일부를 길들여 생활에 이용하고 기르게 되었다.³³⁾ 동물은 인간과 함께 인간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제적·생산적 이유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수단과 사회조직에 있어서의 변화가 그 어떤 것이었건 인간은 식품과 노동·수송·의복 등을 동물들에 의지했기 때문이다.³⁴⁾ 그 영향으로 동물은 점점 민간신앙을 비롯한 생활전반에 나타나고 문화예술과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모든 조형 예술 분야에 걸쳐 인간 다음으로 표현의 소재가 되었다. 즉,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기도하고 끊임없는 생명력과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공생과 공존을 하며 친숙함을 주기도 한 동물은 작가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무한한 소재로 선택되어지고 있다.

인간과의 감정, 유사점과 함께 동물만이 가지는 외형적 특징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움직임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러한 동물의 매력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작업의 소재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많은 예술가들은 동물의 모습과 움직임을 담아내고자 했는데 수많은 그려지고 남겨진 예술에서 동물의 표현들은 동물이 얼마나 소중한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

33) 장소현, (1979), 「동물의 미술」, 열화당, p.4.

34) 존 버거, (2000),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p.9.

람들은 단지 그것을 흉내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물의 형상은 사람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그림 속에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형상이 과장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등 그 의도와 목적대로 변화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을 결합하기도 하고, 동물과 동물의 형상을 결합하기도 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존재를 창조해냈다.³⁵⁾

그러한 동물의 모습들 중 하나가 바로 신화 속 주인공들이다. 대부분은 동물의 몸체에 인간의 머리를 합성한 것이지만 인간의 몸체에 동물의 머리를 붙인 예도 있고 인체를 토대로 하여 거기에다 동물의 뿔이나 꼬리를 붙여 상징적으로 인용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신화 속 동물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친 자연환경에서 사냥해야 할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동물인 동시에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의 성격이 강했고 이루지 못한 소망 때문이라거나 혹은 강한 힘에 대한 열망 등의 성격을 지니는 경배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동물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인 것으로 사나운 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닮고 싶은 욕구는 강한 동물로의 변형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³⁶⁾

시대적 환경에 비춰 보았을 때 오랫동안 동물과 함께 지내온 인간의 생활을 살펴보면 예술에서 동물의 등장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묻어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성시하거나 그들을 사육하거나 대치상태이거나 하였던 동물들은 예술에서 하나의 소재가 되어 표현수단이 되고 인간들에게 다른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하여 준다. 동물은 표현하는 인간에게 있어 동물을 보면서 본성이 파악되고 감성적 요구와 성취의 욕구로 새로운 아름다움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조형예술의 중요한 소재의 대상인 것이다.

이처럼 예술에서 동물은 끊임없는 조형의지와 표현의 소재로 선택되어지고 있다. 이를 의인화적 표현, 해학적 표현, 상징적 표현인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동물형상을 보여준 예술작품들을 예로 그 사상과 표현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의인화적 표현

의인화는 인간 이외의 무생물, 동·식물, 사물 등을 인간에 견주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에서 의인화적 표현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특성, 인간이

35) 윤보경, (2008), 「동물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p.110

36) 김선자, (2002),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p.17-47.

느끼는 감정과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양식을 동물과 무생물을 통해 인간처럼 표현한다.

동물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뛰어난 존재로서 의인화과정을 가능케 한다. 동물의 의인화란 동물들에게 인간이 지닌 특성을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의인화적 표현의 동물들은 대부분 단국신화의 곰이나 호랑이 같이 의인화된 동물로 전통적인 우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 같이 말을 하거나, 두발로 서거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의인화는 재미있으면서도 주제를 잃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성격으로 풍자화나 만화, 조각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미술사에서 보여 지는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문화적 코드의 변화 속에서 의인화는 남녀노소 모두의 상상력을 유발시키며 여러 색채의 희로애락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포함하여 희화적, 희극적 요소의 표출과 견주어 못지않은 비화적, 비극적 상황 연출에 활용된다.³⁷⁾ 현대 삶 속에서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 다재다능한 능력을 뽐내며 매력을 발산한다. 인종차별적 요소가 없고 친근함과 코믹성 등을 가진 동물의 의인화는 예술적 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1] William Wegman
「Pat-a-cake」 2001



[도2] William Wegman
「Miss Met」 1991

윌리엄 웨그먼(William Wegman)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애견 와이머러너(weimaraner) 견종을 작품의 모델로 삼아 의인화시켜 회화 및 비디오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 [도1, 2]에서 개는 우리 생활 주위의 다양한

37) 김경애, (2007),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 의인화 특성」,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p.63.

웃차림과 소품으로 분장하였다. 마치 어린아이의 상상에서 시작된 것 같은 그의 작품들은 요리사 복장과 앞치마를 입고 주방제품 옆에 서 있는 개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하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 속에 코믹함과 즐거움을 가미시키고 있다.

작가는 동물 의인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개가 하도록 구성하고 인간의 모습을 더 인간답게 표현한다. 그리고 일상적이면서 상투적인 소재를 획득하여 자유분방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그의 작품은 심각하거나 진지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게 호소력을 갖는다.³⁸⁾



[도3] Lisa Clague
「Inner World」 2008



[도4] Lisa Clague
「Trio」 2000

리사 클라그(Lisa Clague)의 작품은 주로 형상적인 조각으로 환타지와 현실 사이를 맴도는데, 유희적이면서도 신비스럽고 명상적이다. 인간과 동물의 형태를 결합한 사이보그적인 형상들은 무의식과 비가시적인 것들 사이를 상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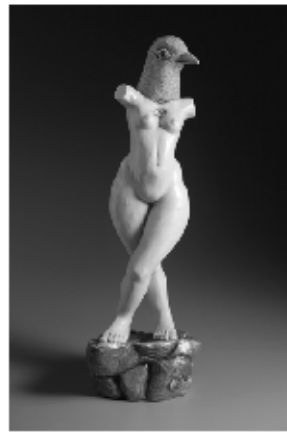
[도3]은 말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만들어서 인간세상을 풍자하는 듯하다. 인간의 형상에 말의 두상을 올려 독특한 조형의 효과와 작가의 내면을 나타내서 표현하고 있다.

[도4]의 마스크를 쓴 현상들은 혼성적인 존재들로 모호성과 위장, 유혹과 기만의 여주인공들이다. 꿈과 같은 유희한 환상이나 강렬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겹의 이미지들의 혼합은 많은 내적세계의 욕망, 불안한 시적인 매력을 반영한다.

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cid=042&aid=0001942857&sid1=001>



[도5] Cynthia Consentino
「Birdma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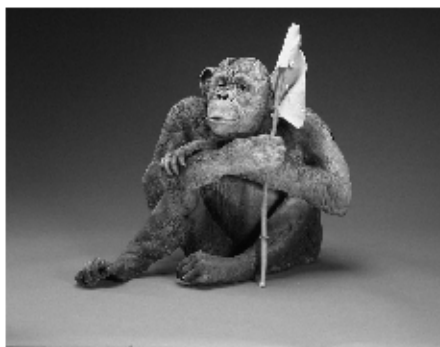
[도6] Cynthia Consentino
「Birdwoman」 2006



[도7] Cynthia Consentino
「Harpy」 2006

신시아 콘센티노(Cynthia Consentino)는 성별, 가족과 사회의 역할, 종교와 문화 관습, 그리고 인간의 지각을 조각으로 표현한다.

작품 [도5, 6, 7]은 절미한 시체 시리즈로 2006년 작은 피규어 작품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각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성별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작가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끊임없이 사회조직과 역할을 위해 도전하고 실패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한다.³⁹⁾ 이를 새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결합하여 신화적 양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동화적으로 표현하였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였다.



[도8] Pamela Earnshaw Kelly
「Territorial 2」 2005

파멜라 언쇼 켈리(Pamela Earnshaw Kelly)는 동물이미지를 통해 점토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이다.

작품 [도8]에서 원숭이는 사실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표정은 매우 인간적이다. 원숭이는 예부터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의인화시키기가 가장 쉽고, 인간을 풍자하기에도 적합하다.

Territorial은 동물이 세력권세의 습성을 갖는 담당구역이라는 의미가 있다. 작가는 원숭이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의미인 편식깃발을 들고 있고 인간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영역을 의인화적 표현으로 풍자하고 있다.⁴⁰⁾

39) <http://www.cynthiaconsentino.com>

40) 서예나, (2006), 「동물의 우화적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p. 7.

(2)해학적 표현

해학의 사전적 정의는 익살스러우면서 풍자적인 것으로 되어있고, 덧붙여 ‘익살’과 ‘유머(Humor)’를 동의어로 규정하고 있다.

해학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상을 내려다본다는 점에서 풍자, 기지, 아이러니와 동일한 골계에 속하지만, 대상과 대립해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동정으로 그 대상을 감싸준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한 일면을 갖는다. 따라서 해학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측면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¹⁾ 해학은 인간 정신는 축제로움을 깨어 새로운 사상을 갖게 하고, 사려 깊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며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해학은 웃음이 깃들인 풍자이다. 웃음을 밑에 깔고 온전한 것과 숭고한 것에 숨겨진 허실의 정곡을 찌르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해학적인 표현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미술에서의 해학적 표현은 항상 존재해왔다. 해학의 특징들을 보면 노동과 놀이 하는 모습에서 밝고 건강한 해학을 보여주고, 생략과 과장의 묘사로 해학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상의 풍자를 통해 암시적 해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해학은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표현에 관계되어 있다. 절제가 동반된 균형미, 엄숙함, 비장미와 같은 무겁고 심각한 곳에서는 해학이 존재할 수 없으며, 작품표현에 있어 암울하고 비관적인 것이 아닌 보다 밝은 시각적 표현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해학적 표현이다. 작가에게 정신적인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메시지에 있어서도 현실의 한 덩어리의 웃음으로 효과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즉, 예술표현에서 해학적 표현은 작품을 통해 웃음을 던져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41) 이은경, (1994), 「한국화에서 나타난 해학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6.



[도9] David Gilhooly
「Mao Tae Toad」 1992



[도10] David Gilhooly
「Frog Burger, One」 2008

데이비드 길홀리(David Gilhooly)의 작품의 이야기 중심적인 오브제들은 현실, 꿈, 환상에 대한 예술가의 세계에 비친 인물이나 사건들을 설명해 준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은 데이비드 길홀리의 개구리 세계이다.⁴²⁾ 점토를 다루어 채색하는 방법을 응용한 근본적으로 표현주의적인 성격의 작업이다.

길홀리는 자신의 개구리를 통해 사회와 예술의 전반을 익살스럽게 풍자하였다. 동물의 세계를 통하여 사회를 관조함으로써 사실상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개구리의 문화, 즉 우리 자신의 것과 유사한 문화의 역사를 폭로하는 사람으로서 길홀리는 지구 역사의 핵심을 탐구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개구리로 표현된 수많은 저명한 인물들을 향아리와 반침대위에 부활시켰다. 그의 개구리 문화의 탐구 결과는 자신이 만든 적색 점토 덩어리로 오브제들을 조각해 궁극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의 작업들은 매우 즐거운 착상이었으며 기지가 넘치고 풍자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 [도9]에서는 1960년대 말엽부터 개구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인류문명을 훑내 내는 광대들과 유사 동족들 그리고 시골 환경들과 풍속과 복장들 내에서 개구리 이미지들을 차용 하였으며, 개구리 역사, 풍속들, 그리고 개성들에 대한 그의 상상으로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익살과 해학의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 사회 전반의 모습을 풍자하며 비판의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⁴³⁾

42) 가드클락, 신광석, (1999),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p.239.

43) 모인순, (1995), 「점토혁명-예술언어로의 전환」, 보문당, p.161.



[도11] 박재국 「항아리」 2007

박재국은 물고기와 동심의 세계를 맑은 색채로 표현한 도자기 작가이다.

작품 [도11]은 넉넉하면서 편안함을 지닌 달 항아리에 물고기들이 여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정감 있는 조각과 독특한 회화성으로 도자기에 섬세하고 순수한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은범의 작업 [도12]은 현대문명의 폐마른 정서에 돼지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해학적으로 풀어 낸 작업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도12] 이은범 1997

(3) 상징적 표현

상징은 인간 본질의 심오한 표현이다. 상징은 모든 시대의 문명에 있어왔고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인공물 이상의 것이며 우리의 지성, 정서에 영향을 주어 상징에 관한 연구는 인류 자체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⁴⁴⁾ 상징은 이념을 감상시킨 것으로 미학상 극히 중요한 뜻을 갖는다. 이것은 자연적 상징(예를 들어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과 관례적 상징(예를 들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한다)등으로 언어, 신화, 종교, 철학 등의 문화영역들과 정통적인 상징이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 예술가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징이 창조되어 미적 가치의 구성에 참여한다.⁴⁵⁾

칼 구스타프 융(Carl G Jung)은 그의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중에 물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형(그리하여 그것들에게 심리적 중요성을 부여함)시키고 그것들을 종교와 미술로 표현한다.⁴⁶⁾’라고 하였고, 예술은 ‘상징’이라고 개념 짓고 작가가 경험 한 것,

44) 데이비드 폰테너, 최승자 옮김, (2002),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p.8.

45) 월간미술, (2007),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월간미술, p.204.

46) Carl G Jung, 조승국(역), (1981), 「Man and His symbol」, 범조사, p.276.

지각 한 것, 느낀 것, 생각 한 것을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예술 안에서 동물은 주술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 대해 인간을 빗대어 풍자도 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작가의 개성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만들어 내고 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종교나 예술에는 항상 동물의 상징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동물상징은 상징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정신적 내용인 본능과 삶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과 흡사한 본능을 지닌 동물은 조형세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상징의 표제가 될 수 있다.



[도13] Adrian Saxe
「Untitled Covered Jar」 1980



[도14] Adrian Saxe
「Antelope Jar」 1943

에드리안 삭스(Adrian Saxe)는 ‘영양’이라는 동물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여 기하학적 형태의 작품 어딘가에 항상 배치한다. 그리하여 영양의 모습이 드러내 주는 ‘생명력’이라는 느낌 자체를 기하학이 주는 가공의 인공적인 느낌과 대비시켜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 [도13, 14]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든 부분들을 고부조로 처리하는 ‘대비’이다. 기본 형태는 기하학적인 것으로써 절제되고 사색적인 형태들이다. 그러나 영양을 묘사한 부분은 사냥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생명력’을 표현해준다. 이것은 극적인 대비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 영양은 순간적으로 정지된 시간을 표현해 주고 있는 반면, 전체적인 작품의 형태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⁴⁷⁾ 삭스의 영양은 작품의 시각적 느낌을 체계화하고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다.

47) 신일선, (2009), 「에드리안 삭스(Adrian Saxe)의 작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91.



[도15] 신상호
『Dream of Africa』 2007



[도16] 신상호
『Dream of Africa』 2007

신상호는 아프리카의 원초적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실험적인 도예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작품 [도15]은 아프리카 동물 모양을 형상화한 도자기인데 색은 강렬하고 모양은 특이하다. 이 동물은 인간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다. 특히 눈을 보면 분명 사람의 눈이다. 이 혼성적인 동물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으로 창조한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기 이전의 그 어떤 세계, 즉 원초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인위적인 억압이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고픈 작가의 열망의 표현이다.⁴⁸⁾

동물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원시인들의 사유방식 속에는 위대한 조상이 지닌 초인적 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어려운 문제에 대면한 부족들에게 동물조상과 일체화될 필요성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주술사는 특정한 의식행위를 통해 동물과 하나 됨으로써 동물의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⁴⁹⁾ 이 작품 [도16]은 샤머니즘에 심취했을 때 만든 ‘토템 시리즈’다.

48) 신상호 도예展, 강렬한 색감 특이한 형상-이광표,
<http://news.donga.com/3/all/20020625/78980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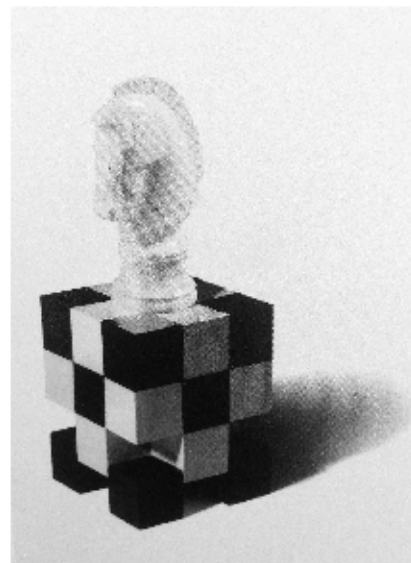
49) 이형심, (2009), 「한국의 샤머니즘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 p.24.



[도17] 맹옥재 「희색숲」 2012 우러진 생태계 속에서 세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인간과 타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작고 보잘 것 없는,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기 쉬운 생명들의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동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윤지용은 공격과 방어를 하며 상대의 말을 잡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고, 이러한 형식적 룰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먹이 사슬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하여 작품에 반영한다.

작품 [도18]은 결국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보드에서 견제와 방어를 병행하는 체스맨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체스 동물 말을 통해 상징화 하였다. 규격화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 정해진 규칙을 준하여 진행되는 개인의 구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였다.



[도18] 윤지용 「Chessman」 2012

맹옥재는 백토를 이용해 사슴, 코뿔소 등의 동물 두상을 박제 형식으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도시생활에 적응되고 익숙해졌던 작가는 캐나다와 북유럽에서의 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된 환경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조화에 대한 갈망과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고는 작품의 주제 선정 및 표현에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⁵⁰⁾

그의 작품 [도17]은 생명력과 생동감을 상실한 자연생태의 단면을 포착한다. 자연과 도시가 어

50) HOT Rookies, http://gicb2013.kocof.org/html_kor/archive/archive_view.asp?page=4&idx=445&keyfield=&keyword=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한국의 24절기의 의미를 주제로 하여 인간의 모습을 자연과 동물에 빗대어 상징적, 유희적, 해학적으로 의인화하여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나누고, 그것은 다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제례적 민속적 요소가 내포된 24절기로 나누었다.

먼저 농번기 시대에 계절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 절기의 의미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각 절기에 내포된 특징적 모습을 찾아 이중 아직까지 현재적 삶에 더 영향을 미치는 12개의 절기를 선별하여 동물형상의 조형적 표현에 집중하고자 했고, 나머지 12개의 절기는 절기 속 자연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평면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조형표현과 거친 표면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조형토를 사용하고, 유약색의 발색을 위해 조형토 중에서도 산화소성 후 자기의 색이 백색을 띄는 백색 조형토를 사용한다. 조형작업은 속파기 기법과 코일링 기법을 통해 표현한다. 평면작업은 깨끗하고 맑은 칼라의 발색을 위해 백색도가 높은 D1백토 소지로 제작되어진 도판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동물 표면의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색감표현을 위해 테라시질레타(Terra Sigillata)를 사용하고 계절별 상징하는 자연의 색감표현을 위해 발색이 좋은 던컨유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자로는 섬세한 표현의 한계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 재료인 유리와 금속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의 디테일을 살리고자 한다.

1) 형태와 이미지

(1) 동물형태

본 작품에 동물 형상의 조형적 표현을 위해 우리나라 계절을 상징하고 한국의 절기와 어울리는 동물 네 마리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 상징생각과 계절기와 느껴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선별하였고, 절기 속 의미를 갖고며 농번기 시대부터 친숙하게 여겨져 왔던 동물 개구리, 소, 닭, 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절기의 의미를 동물들의 동세표현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방향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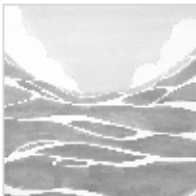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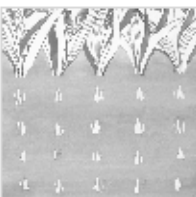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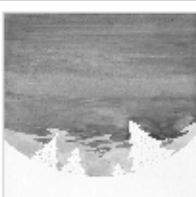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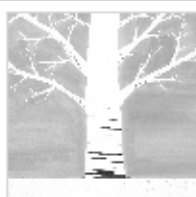
하였다. 또한 절기별 계절적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 동물의 색감표현에 있어와 동물 고유의 색감이 아닌 계절별 어울리는 색을 동물에 표현하여 해학적 표현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표2>

계절	절기와 동물형태		
봄	입춘(立春)	경칩(驚蟄)	청명(淸明)
			
여름	소만(小滿)	하지(夏至)	대서(大暑)
			
가을	처서(處暑)	백로(白露)	한로(寒露)
			
겨울	입동(立冬)	대설(大雪)	소한(小寒)
			

<표2> 12절기의 조형적 동물형태 표현연구

(2) 자연 이미지

본 작품에서 각 절기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자연대상에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구름, 물, 나무, 잎 등의 자연물로 절기에 맞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계절별 연상되는 색감을 절기에 표현하고자 한다. 봄은 생명이 돌아나는 계절로 밝고 화사하며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연한녹색과 청녹색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하늘색과 파스텔 톤의 노란색을 사용한다. 가을에는 수확과 단풍의 계절답게 주로 황색을 기본으로 붉은색과 주황색을 함께 사용하고, 겨울은 차가우면서 깨끗함을 느끼게 해주는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채도가 낮은 파란색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3>

계절	절기와 자연이미지		
봄	우수(雨水)	춘분(春分)	곡우(穀雨)
			
여름	입하(立夏)	망종(芒種)	소서(小暑)
			
가을	입추(立秋)	추분(秋分)	상강(霜降)
			
겨울	소설(小雪)	동지(冬至)	대한(大寒)
			

<표3> 12절기의 평면적 자연이미지 연구

2. 제작과정

1) 소지

본 작품의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성형의 용이성, 건조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모트(Chamotte)와 물라이트(Mullite)성분이 함유된 백색 조형토를 사용하였다. 일반 조형토는 1250℃의 산화소성 후 자기의 색이 연한 노란색을 띄어 색감표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색 조형토를 사용함으로써 발색이 좋은 색감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2) 성형

성형방법으로 동물의 다양하고 특징적인 형태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의 몸체는 속파기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동물의 장식부분이나 몸체 이외의 귀, 다리, 날개, 꼬리 부분은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완성된 작품의 크기보다 좀 더 크게 형태를 잡아 태토를 뭉친다. 이때 태토의 밀도를 위해 도박 등을 이용한다.
- ② 디자인대로 외형을 깎아서 형태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덧 붙여 성형한다.
- ③ 너무 무르면 섬세한 외형을 다듬기가 어려우므로 적당히 건조 시킨 후 외형을 마무리 한다.
- ④ 마무리 된 형태를 와이어를 이용하여 속파기에 용이한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시키고, 이 때 몸체 이외의 부분들의 형태도 코일링 기법으로 만들어 함께 건조시킨다.
- ⑤ 적당히 건조된 상태에서 절단 되어진 형태들을 일정한 두께로 속파기를 한다. 그리고 비닐을 이용하여 하루정도 덮어 둔다.
- ⑥ 비닐을 덮어 둔 형태들의 소지상태가 비슷한 습도가 되면 접합부분을 긁고 흙물을 바른 후 접합한다. 이 때, 몸체 이외의 섬세한 부분도 함께 접합하여 표현한다.
- ⑦ 나무도구들을 이용하여 눌러주며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때 타 재료의 부착이 필요한 부분은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어 준다.
- ⑧ 접합부분과 작품의 외형을 다시 한 번 손질한 후 질감표현이 필요한 부분만 스펀지와 도구를 이용해 표현한 후 마무리 한다.

3) 색채 장식 및 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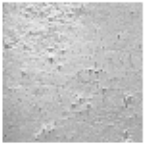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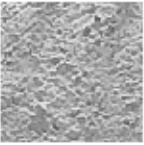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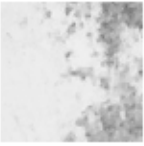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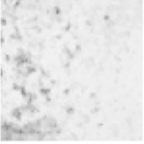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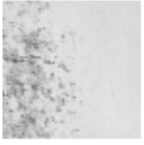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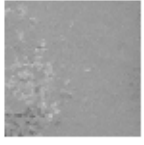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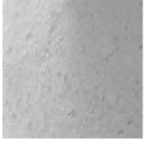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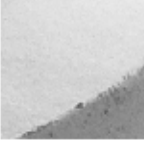
색채 장식으로는 중화도 색유와 테라시질레타를 함께 사용하여 유광과 무광의 질감차이를 통하여 대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차 소성이 된 상태에서 먼저 망간 <표4>을 붓으로 3번에서 4번 시유한 뒤 닦아 주었는데 이는 색유의 채도가 낮아져 테라시질레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동물들의 표면 질감을 돋보이게 표현해주었다. 테라시질레타는 기본적으로 <표5>와 같은 백색과 적색의 테라시질레타를 만들고 이에 안료를 첨가하여 <표6>, <표7>과 같은 색상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중화도 색유는 시판되고 있는 유약으로 미국의 도자재료 회사 Duncan에서 나온 색 중에서 원색위주로 광택이 나는 IN시리즈 <표8>를 부분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사용하고 EZ시리즈 <표9>는 수채화효과를 이용하여 붓의 터치감과 그라데이션(gradation) 표현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재료	비율(g)
망간	5
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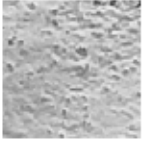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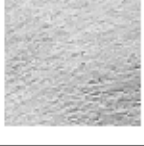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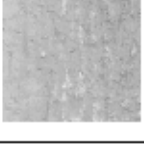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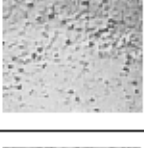

<표4> 망간 조합량(g)

재료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Ball-Clay	1,500	
Red-Art		1,500
탄산나트륨	4.5	12
물(cc)	6,000	4,500

<표5> 테라시질레타 조합량(g)

색상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안료
	100		L. Green 20 Yellow 10
	100		Y. Green 30
	100		L. Green 30
	100		Yellow 20
	100		Yellow 10
	100		L. Orange 10 Yellow 10
	70	30	T. Blue 20
	100		Harvest 30
	100		Y. Green 20 Harvest 10

<표6> 테라시글레타와 안료의 조합비a

색상	White Terra Sigillata	Red Terra Sigillata	안료
	100		M. Blue 20 Black 1.5
	100		M. Blue 20 T. Blue 10
	100		T. Blue 5
	100		T. Blue 20
	100		T. Blue 30
	100		Co. Blue 10 Lilac 5
	100		Co. Blue 30
	100		Lilac 20 Co. Blue 5

<표7> 테라시글레타와 안료의 조합 비b

색상	유약	색상	유약
	1017 SeaMist Green		1006 Tearose
	1064 Baby Blue		1032 Miami Pink
	1033 Bluebonnet		1004 Sunset Red
	1634 Royal Blue		1626 Royal Ruby
	1061 Light Kelp		1011 Royal Purple
	1201 Neon Yellow		1012 Orchid
	1030 Cornmeal		1023 Butter Toffee
	1781 Pumpkin Orang		1613 Black

<표8> Duncan 사의 중화도 유약 IN시리즈

색상	유약	색상	유약
	018 Chartreuse		004 Willow Yellow
	028 Leaf Green		034 Orange
	033 Ivy Green		005 Sierra Yellow
	024 Royal Blue Green		104 Neon Orange
	032 Peacock Green		038Medium Mahogany
	102 Neon Blue		068 Roasted Chestnut
	074 Dark Navy		008 Ruby Red
	013 White		007 Royal Purple

<표9> Duncan 사의 중화도 유약 EZ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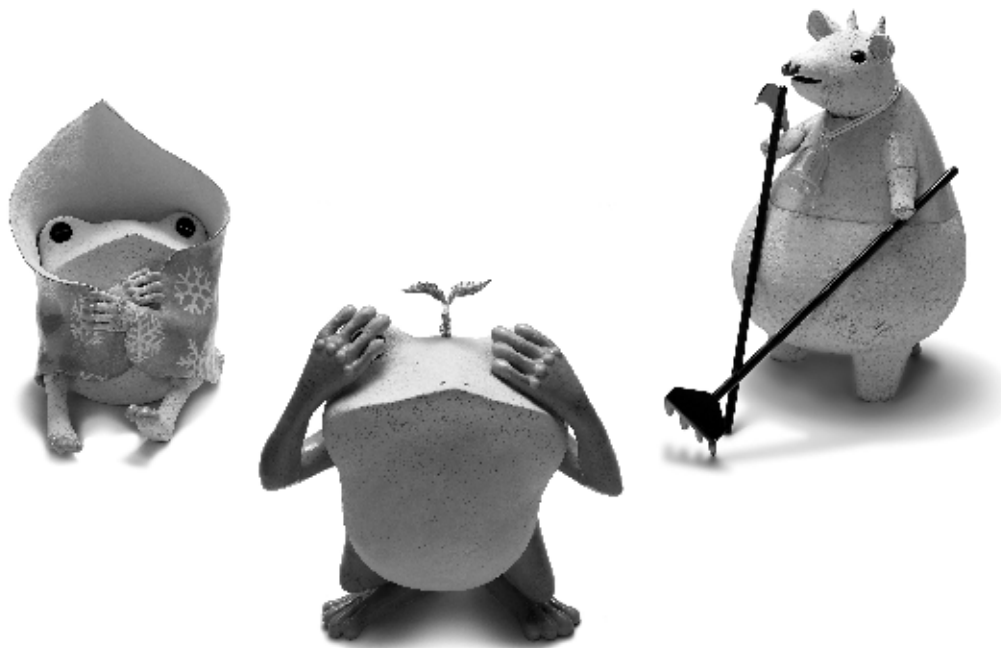
4) 소성

1차 소성에서는 2차 소성의 온도가 중화도로 소성되어 자기의 강도가 약해지고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초벌온도보다 높은 1250℃까지 12시간 정도로 서서히 산화소성 하였다. 2차 소성은 중화도 색유와 테라시줄레타의 발색을 위하여 100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3. 작품해설

[작품 1] 봄 절기 - 입춘, 경칩, 청명

봄의 절기 입춘, 경칩, 청명을 개구리와 소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입춘은 동면하는 동물 중 개구리를 선정하여 얼음이 녹기 시작하지만 아직 추운 절기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뭇잎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나뭇잎 표면에는 눈 결정을 나타내서, 이 절기는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이기도 하여 눈을 가렸던 개구리가 눈을 뜨는 동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머리에 새싹이 돋아남을 표현하였다. 청명은 농경사회였던 이 무렵 봄밭갈이를 한다. 때문에 예로부터 농사에 도움을 주던 소를 주제로 농기구를 들고 논농사 준비를 하는 소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새싹과 종은 도자 연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유리를 사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웠으며, 농기구는 현재적 모습을 반영한 모던한 형태로 금속으로 제작하였다. 봄 절기의 색깔 표현은 새 생명이 돋아나고 따뜻한 느낌의 연한 녹색과 노란색계열을 동물 몸에 전체적으로 채색하며 부분적으로 주황색과 분홍색 색감을 통하여 생명력이 느껴지게 표현하였다.



[작품 1] 「봄 절기 - 입춘, 경칩, 청명」

270×300×370mm, 210×210×300mm, 240×270×430mm

[작품2] 봄 절기 - 우수, 춘분, 곡우

봄 절기 우수, 춘분, 곡우를 자연이미지 통해 상징화하여 일러스트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평면작품이다. 우수는 새싹이 돋아나고 봄비가 내리는 절기로 새싹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고 빗줄기의 선적이 요소를 묘사하였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 판을 정확하게 2등분하였고 겨우내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곡우는 산천초목이 소생의 기운으로 완전해지는 절기이고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나무를 분홍색으로 가득 채워 단순화하여 벚꽃나무를 상징하도록 하고, 절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가지와 나무에 곡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평면작업의 색감도 주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연한 녹색과 청녹색을 사용하여 봄 절기를 시각적 감성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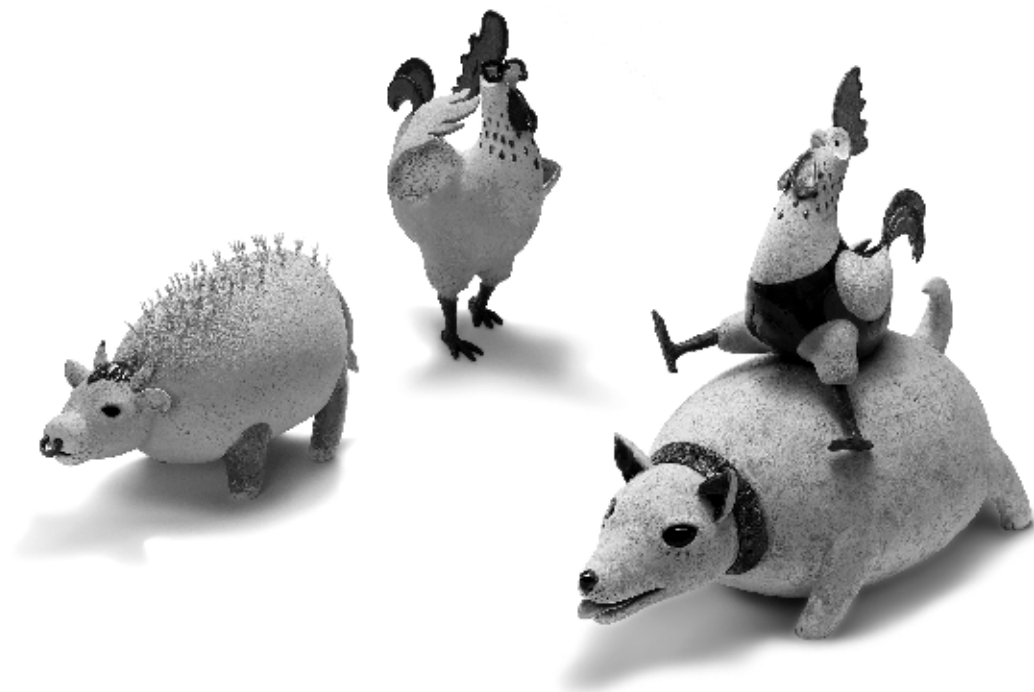


[작품2] 「봄 절기 - 우수, 춘분, 곡우」

380×380×10mm, 380×380×10mm, 380×380×10mm

[작품3] 여름 절기 - 소만, 하지, 대서

여름의 절기 소만, 하지, 대서를 소와 닭, 그리고 개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소만은 모내기로 바빠지는 절기로 농사의 동물 소의 등에 모를 심어 절기의 해학적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긴 절기여서 태양을 피하는 동세표현을 하였다. 여름에 연상되는 동물 닭을 주제로 하여 닭이 현재적 소재인 선글라스(sunglass)를 쓰고 햇빛을 가리는 동세로 의인화적 표현에 재미를 주었다. 대서는 장마가 끝나고 가장 더위가 심하며 이 시기는 대개 중복(中伏)이다. 여름더위에 즐기는 동물 닭과 개를 선정하여 개는 더위에 지친 표정을 하고 그 위에 닭이 앉아 손부채를 부치는 행세로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소 등에 모와 선글라스는 맑고 투명한 유리로 제작하여 현재적 감성을 상징하도록 하였고, 흙으로 제작된 닭을 두 다리로 지탱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리는 금속으로 제작하여 표현하였다. 여름 절기의 색감표현은 시원한 느낌의 하늘색과 푸른 청녹색을 전체적으로 채색하여 활기찬 느낌을 주었고, 부분적으로 파스텔 톤의 노란색을 사용해 활기차면서 부드럽고 은은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3] 「여름 절기 - 소만, 하지, 대서」

200×290×210mm, 250×380×450mm, 360×760×650mm

[작품4] 여름 절기 - 입하, 망종, 소서

여름 절기 입하, 망종, 소서를 자연이미지를 통해 상징화하여 일러스트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평면작품이다. 입하는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며 산야의 풀잎들이 푸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들판을 표현하고 그 안에 시원한 바람에 춤을 추는 듯한 풀잎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나타냈다. 망종은 보리를 거두고 벼모를 심게 되는 때로 화면에서 기울어진 보리를 표현하고 그 안에 벼모를 단순화시켜 상징적인 표현을 하였다. 소서는 본격적인 더위에 접어드는 시기로 장마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물놀이가 한창이어서 덥지만 시원하고 푸른 바다를 중점으로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평면작업의 색감은 주로 하늘색을 넓게 채색하여 여름의 시원함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작품4] 「여름 절기 - 입하, 망종, 소서」

380×380×10mm, 380×380×10mm, 380×380×10mm

[작품5] 가을 절기 - 처서, 백로, 한로

가을의 절기 처서, 백로, 한로를 개구리와 소, 그리고 닭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처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곡식들이 여무는 모습을 개구리가 구름을 타고 머리에 자란 벼이삭을 만지는 동세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또한 개구리의 머리에서 자란 벼이삭은 작품 속에서 유희적이며 해학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백로는 수확의 절기 전으로 가을의 절기를 느끼며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농사의 동물 소를 의인화하여 수확을 준비하지만 폭신한 베개에 기대어 다리를 꼬아 앉아 쉬고 있는 재미난 동세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로는 단풍이 떨어지는 절기로 자연의 모습이 붉고 노오랗게 물들어 간다. 닭이 단풍잎을 손에 들고 놀이를 하는 동세로 가을 절기에 단풍놀이가 주는 즐거움을 상징한다. 여기서 개구리 머리의 벼이삭은 가늘고 긴 형태로 섬세한 표현이 필요하여 유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닭의 다리와 소가 들고 있는 낮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현재적 소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가을 절기의 색감 표현은 수확과 단풍의 계절답게 연상되는 황금들판의 색상인 황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붉은색과 주황색을 부분 채색하여 색감이 풍부함을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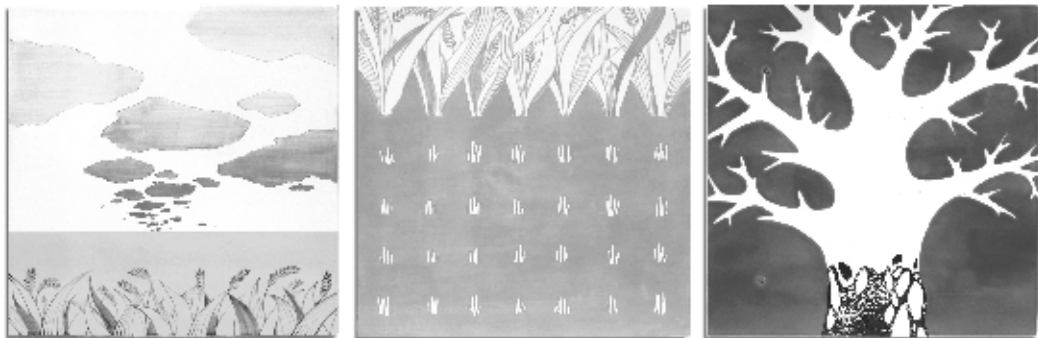


[작품5] 「가을 절기 - 처서, 백로, 한로」

300×350×470mm, 180×300×330mm, 370×450×540mm

[작품6] 가을 절기 - 입추, 추분, 상강

가을 절기 입추, 추분, 상강을 자연이미지를 통해 상징화하여 일러스트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평면작품이다. 입추는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며, 구름이 높아지고 벼가 익어가 푸르른 들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가을구름을 상징하기 위하여 색감은 주황색을 이용하였다. 추분은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절기여서 벼를 베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랗게 익은 벼와 베어진 벼의 모습을 단순하게 이미지화 하였다. 상강은 수확이 끝나고 뽕서리가 내리면서 단풍이 끝물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여 단풍나무를 단순하게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붉은 색을 가득 채워 가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평면작업의 색감은 주로 짙은 황색과 붉은색을 넓게 채색하여 모든 자연이 익어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6] 「가을 절기 - 입추, 추분, 상강」

380×380×10mm, 380×380×10mm, 380×380×10mm

[작품7] 겨울 절기 - 입동, 대설, 소한

겨울의 절기 입동, 대설, 소한을 개구리와 개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로 점점 추워지면서 동물들이 동면할 준비를 한다.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를 주제로 나뭇잎을 덮어 눈을 가리고 웅크려 앉아 동면하려는 자세를 표현하였다. 개구리의 배에 눈 결정 일러스트표현을 통해서리가 내리고 있는 모습에 재미를 주었다.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린다 해서 겨울과 친근한 동물 개를 주제로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신던 설피를 개에게 신겨서 의인화적 표현과 눈뭉치를 집어 던지는 동세를 통해 해학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소한은 일 년 중 가장 추운 절기로 개가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는 동세와 추워서 흐르던 콧물이 고드름으로 변한 모습을 유희적이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설피는 도자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소한 개의 코에 고드름은 실제 고드름처럼 투명하게 유리로 표현해 보았다. 겨울 절기의 색감표현은 차가우면서 깨끗함을 느끼게 해주는 흰색과 보라계열의 푸른색을 전체적으로 채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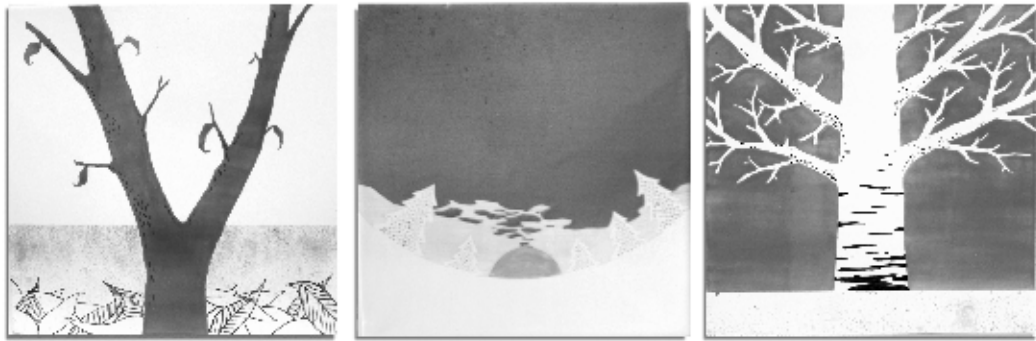


[작품7] 「겨울 절기 - 입동, 대설, 소한」

350×350×320mm, 250×300×450mm, 240×300×350mm

[작품8] 겨울 절기 - 소설, 동지, 대한

겨울 절기 소설, 동지, 대한을 자연이미지 통해 상징화하여 일러스트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평면작품이다. 소설은 겨울기분이 점점 나는 때로 첫눈이 내리는 첫겨울의 정후가 보이는 절기로 가으내 다 떨어진 낙엽 위로 눈이 덮인 모습과 앙상한 나뭇가지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였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어서 겨울밤이 느껴지는 연보라색을 넓게 채색하여 긴 밤이 찾아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즈음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나무표현을 크리스마스 트리이미지로 단순화 하였다. 대한은 겨울을 매듭짓는 날로 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인데 나무의 직선적인 표현을 통해 겨울의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 겨울 절기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 수직,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고 직선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붓 뿌리기 기법으로 눈을 나타내고 색감표현은 주로 흰색을 기본바탕으로 겨울의 깨끗한 느낌표현과 회색과 채도가 낮은 차가운 하늘색으로 추운 절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8] 「겨울 절기 - 소설, 동지, 대한」

380×380×10mm, 380×380×10mm, 380×380×10mm

IV. 결론

절기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상용화 될 수 없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농업 사회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필요한 절기라는 것을 한국의 24절기의 의미와 풍속의 의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작업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절기(입춘, 입하, 입추, 입동, 동지, 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절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절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절기를 이해하고, 왜 그런 명칭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기가 실생활에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알게 된 이후에는 절기에 대한 이미지 작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둘째, 한국의 절기는 농업시대에 사용된 시간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미학과 과정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절기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오늘날의 제사나 명절과 같은 전통행사는 절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버릴 수 없는 전통의 일부분이다. 때문에 절기를 바탕으로 한 동물의인화와 자연이미지화를 통해 동세나, 색감으로 절기를 상징화하고 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하여 누구나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게 조형화하였다.

셋째, 동물 성형방법은 코일링(Coiling) 기법과 속파기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각기 다른 동물과 동세 표현에 있어서 수월했다. 하지만 형태의 가늘고 섬세한 표현은 도자기법으로 표현하기에는 디테일에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도판 작업은 핸드페인팅(Hand painting)기법으로 절기의 이미지표현에 중점을 두고자 하여 도판 성형 시 판이 변형되어 어려운 점이 많기에 시중에 만들어진 도판 초벌기로 대체하여 페인팅(painting)에 좀 더 집중했다.

넷째, 도자재료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을 타 재료인 유리와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도자조형작품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또한 타 재료의 디테일한 묘사로 절기를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24절기를 표현주제로 오늘날 도자예술 작업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절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시간을 넘어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알고 절기 속 흥미 있는 이야기로 감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연과 동물들의 특징을 극화시켜 도자 조형화하여 현재 속 자연의 지혜를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고자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1] 한판암. (2013). 「절기와 습속 들춰보기」, 해드림
- [2] 정학유. (2008). 「농가월령가」, 창해
- [3] 김광명. (2008).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학연문화사
- [4] 월간미술. (2007).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월간미술
- [5] 지운영. (2006). 「명절과 24절기」, 편들
- [6] 김선자. (2002).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 [7] 데이비드 폰테너, 최승자 옮김. (2002).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 [8] 존 버거. (2000). 「본다는 것의 의미」, 통문선
- [9] 모인순. (1995). 「점토혁명-예술언어로의 전환」, 보문당
- [10] 김재은. (1994).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 [11] 가드클락, 신광석. (1993).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 [12] Herber Read, 윤일주(역). (1991).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13] Carl G Jung, 조승국(역). (1981). 「Man and His symbol」, 범조사
- [14] 장소현. (1979). 「동물의 미술」, 열화당

학위논문

- [15] 이영심. (2009). 「한국의 샤머니즘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
- [16] 윤보경. (2008). 「동물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 [17] 서예나. (2006). 「동물의 우화적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18] 신일선. (2003). 「에드리안 삭스(Adrian Saxe)의 작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19] 이은경. (1994). 「한국화에서 나타난 해학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웹사이트

-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LSD&mid=sec&oid=042&aid=0001942857&s>

id1=001

[21] <http://www.cynthiaconsentino.com>

[22] 신상호 도예展, 강렬한 색감 특이한 형상-이광표. <http://news.donga.com/3/all/20020625/7836083/1>

[23] HOT Rookies. http://gicb2013.kocef.org/html_kor/archive/archive_view.asp?page=4&idx=445&keyfield=&keyword=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with Animals ' Shape of Korean 24 Seasonal Divisions

Jin, Hee Jeong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IT-Design Fusion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human was born, grown, and formed an individual in a large flow of nature even before the prehistoric age. And enormous flow of ecosystem has been continued through organic interactions with a lot of animals and plants, which affects even the history of aesthetics. Therefore, interactions between human and nature are formed and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mmunication factor in art.

This study links modern humans living by wisdom about life of ancestors to nature with a theme of Korean 24 seasonal divisions originated from the time of agriculture. Nature is not simply imitated but expressed and developed into a new aesthetics by understanding a lot of researches and finding the essence, rather than showing the nature as it is.

Therefore, this study is examined our lives closely by categorizing them into 24 seasonal divisions, and it aims to express them in ceramic form based on modern emotions by personifying of our life in nature and animals symbolically, playfully and humorously. In Chapter II, it is included that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customs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in Korea through general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is based on how symbolism and formativeness come to be involved in a role of nature for art, human society and modern formative arts from the various ceramic work studies.

In chapter III,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this study, it is dealt with the expression method research of the nature and animal's images, the seasonal color express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other materials except for ceramic expressions in the part of design and manufacture process.

In this study, the Korean 24 seasonal division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to spend a year in human lives, recognizing a relationship between modern people and nature through wisdom of life from ancestors, and further, humans' senses of lives with nature are described. It is hoped that modern people's perspectives on seasonal divisions would be lead to nature friendly life beyond time.